

국토 균형발전 상징,
영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!

ISSUE BRIEFING 2018

ISSUE BRIEFING 2018

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
2018.08.10 vol.176

www.jthink.kr

연구진
이상재·김재규·김상엽 -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

ISSUE BRIEFING 2018

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
2018.08.10 vol.176

CONTENTS

I. 국토발전 촉진과 균형발전	
1. 국토공간 전략의 핵심: 국토발전 촉진	4
2. 동서내륙축 부재에 따른 균형발전 우려	5
II. 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 방향	
1. 동서내륙경제벨트 개념	6
2. 동서내륙경제벨트 기본방향	7
III. 동서내륙경제벨트 세부 계획(안)	
1. 산업벨트	10
2. 문화관광벨트	12
3. 백두대간 생태밸리	12
4. 광역 SOC 인프라	13



ISSN 2508-688x

발행인 김선기

발행처 전북연구원

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

TEL_063)280-7100 FAX_063)286-9206

※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※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(www.jthink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국토 균형발전 상징,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

- 국토발전 축은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기조가 변해 옴
 - 국토종합계획수립 초기에는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,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에 초점
 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0)에서는 국토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내륙축을 강조했으나,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06, 2011)에서는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 제외
-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토의 상생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동서내륙축의 재설정 필요
 - 동서내륙축은 국토 동서간 발전 및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연계협력을 통한 동서통합 기반 조성 기대
- 동서내륙경제벨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발전축의 전환,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부 발전 축,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지역성벨트로서의 의미 확보
- 동서내륙경제벨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첫째, 환동해·환황해 경제벨트의 거점화, 둘째, 주력산업 연계·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셋째, 인프라 확충으로 국토 내륙 연계 및 물류체계 효율화
-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세부 계획(안)으로 산업벨트, 문화관광벨트, 백두대간 생태벨리, 광역 SOC 인프라 제시
 - 산업벨트 : 차세대 융합콘텐츠 분야 연계(홀로그램 콘텐츠 산업), 항노화(헬스케어) 산업, 해상풍력 산업(기술개발, 인증, 표준시스템 구축 등) 연계벨트
 - 문화관광벨트 : 가야 역사문화 벨트,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
 - 백두대간 생태벨리 : 백두대간 국립공원 생태·힐링 삼각벨리, 국토 동서화합 상생공원
 - 광역 SOC 인프라 : 새만금~포항 고속도로(동서3축) 완결, 전주-김천 철도망 조기 구축,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, 스마트 전북물류기지 건설

I. 국토발전 축과 균형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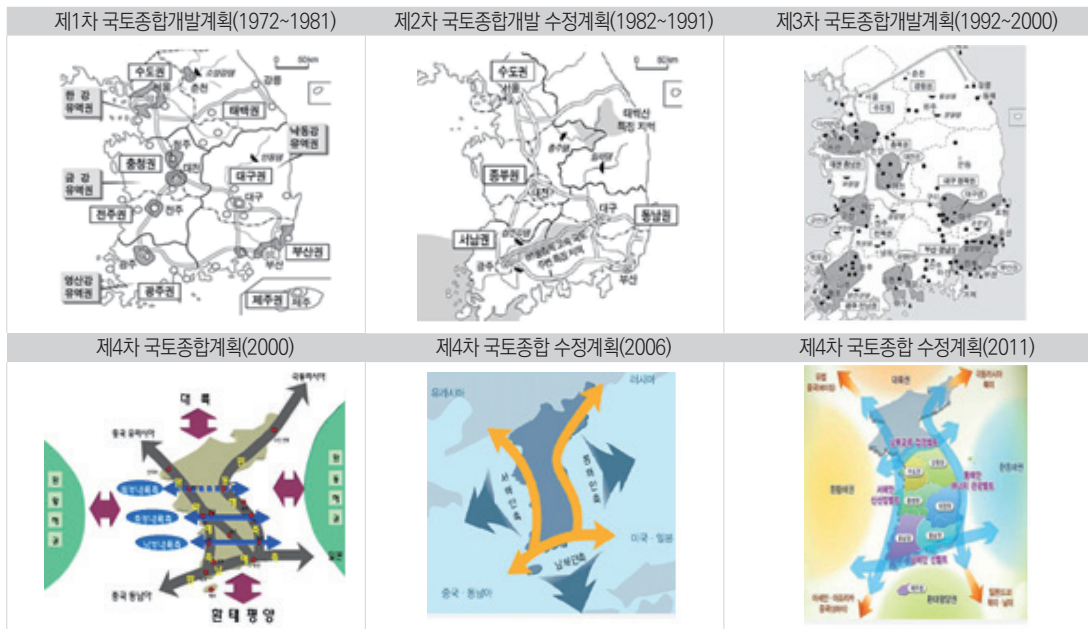
1. 국토공간 전략의 핵심: 국토발전 축

□ 국토공간전략의 가치

- 균형있는 국토개발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중요한 목표 및 책무
 - * 헌법 제120조 제2항 : ‘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.’
- 정부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종합적·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
 -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,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

□ 국토계획의 기조 변화

-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수립·시행
 -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(1972~1981)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제시
 - 이후 2차·3차 계획을 거쳐 4차 계획이 진행 중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에 초점



자료 : 차미숙(2018), 제5차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 수립방향

2. 동서내륙축 부재에 따른 균형발전 우려

□ 동서내륙축의 역할

-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 이후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두 번에 걸쳐 수정
 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0~2020)에서는 ‘21세기 통합국토’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를 중요 목표로 제시
 - 그러나 2006년과 2011년 수정계획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광역화·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으나,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쇠퇴
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0)에서는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‘동서내륙축’을 제시하였으나 수정계획(2006, 2011)에서는 제외
 - 제4차 국토종합계획(2000)에서의 동서내륙축은 국토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황해권, 환동해권을 내륙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
 - ‘동서내륙축’으로 인천~원주~강릉·속초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축과 군산·전주~대구~포항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축으로 구성

□ 동서내륙축 재설정의 필요성

-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상생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
 -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와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
 -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전략으로 ‘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’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등 강력한 균형발전의 의지 표명
-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‘동서내륙축’의 재설정 필요
 - 국토 동서간을 연계하여 발전기회와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국토균형발전 기대
 -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통합 기반 조성 기대

II. 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 방향

1. 동서내륙경제벨트 개념

□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발전축의 전환

-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도권과 경부 축 중심의 개발전략 추진
- 이후 수요-공급 논리에 따른 국토개발로 수도권과 경부 축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전북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
- 기존 경부축과 남북 중심의 국토발전 축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서발전 축 필요

□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부 발전 축

-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중국·유럽 등 대륙과 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연결시켜 지정학적 성격을 복원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
- 동서내륙경제벨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황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를 횡축으로 연결시키는 내부 발전 축



자료 :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용 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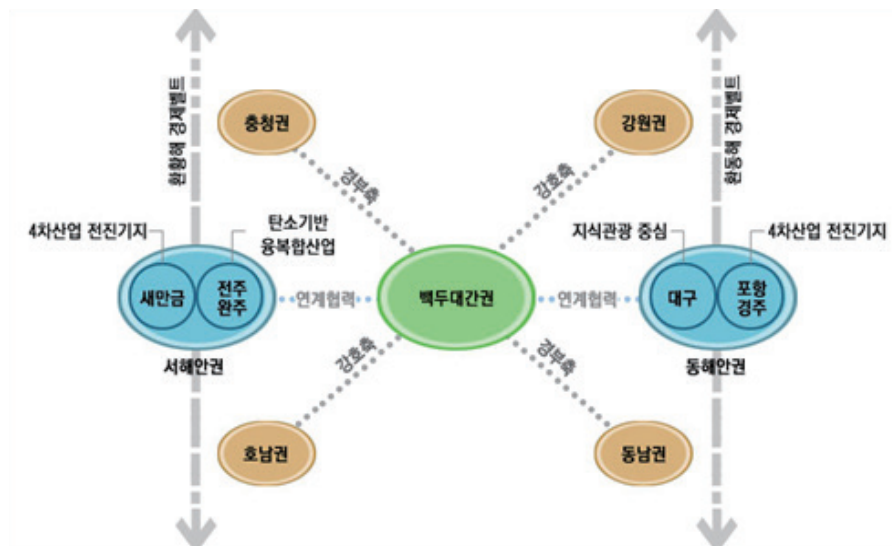
□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지역성장벨트

-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리된 영남지역(대구·경북)과 호남지역(전북)의 화합과 상생발전 도모
-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인 대구·경북과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인 전북의 역사·문화, 생태, 산업, SOC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·협력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성장벨트

2. 동서내륙경제벨트 기본방향

□ 환동해·환황해 경제벨트의 거점화

-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여 환동해 경제벨트 및 환황해 경제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특성화 추진
- 대구와 포항·경주 권역을 환동해 경제벨트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新북방경제 거점으로 육성
 - 대구는 지식관광 중심도시, 포항·경주는 4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
- 새만금과 전주·완주 혁신도시 권역을 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新남방경제 거점으로 육성
 - 전주·완주 혁신도시는 탄소 기반 융복합산업 거점, 새만금은 4차산업 전진기지로 육성



□ 주력산업 연계·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2017.12월 지역경제위원회는 지역간의 산업협력을 유도하고,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6대 신산업 14개 프로젝트로 확정
 - * 6대 신산업: 전기·자율차, 스마트·친환경선박, 프리미엄 소비재, 첨단 신소재 등
- 지역간 산업협력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각 지역의 주력산업 및 혁신자원 간의 연계협력이 중요
- 따라서 동일산업간·지역간 경쟁보다는 가치사슬상에서의 상호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
- 신산업분야 가치사슬의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&D 등의 공동 기획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



□ 인프라 확충으로 국토 내륙 연계 및 물류체계 효율화

- (동서 나랏길 구축)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황해 및 환동해 경제벨트를 횡축으로 연결하고 전북과 대구·경북의 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의 광역적 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
 - 현재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전북권 동서 SOC 사업은 추진 속도가 늦어 동서내륙경제벨트 조성을 위해 신속한 추진 필요

*추진 현황 : <고속도로> 동서 3축 단절구간 49.4% (284km 중 144km 완료) <철도> 추가검토사업으로 구분 (추진 지연)



자료 : 국토교통부(2016),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, 제3차 국가철도망 축계획

- (내륙물류기지 건설) 저비용·고효율의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복합화물터미널(IFT) 과 내륙컨테이너기지(ICD)를 갖춘 대규모 물류시설 필요
-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에 내륙물류기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전북산업특성에 맞고 근접한 특화물류거점은 부재
- 새만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, 농·생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권의 주력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기지 확보 필요



자료 : 국토교통부(2018),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, <http://www.nlic.go.kr/>

III. 동서내륙경제벨트 세부 계획(안)

1. 산업벨트

-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국토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인구와 산업의 흡인역할 부여 필요
- 현재 전북과 경북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함께 바이오화학산업을 공동 추진 중
 - 전북은 바이오소재 생산, 대구는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화를 중심으로 '바이오화학 2.0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' 공동 추진 중
- 동서내륙경제벨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연계와 더불어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연계 가능성 모색 필요

□ 차세대 융합콘텐츠(홀로그램 콘텐츠 산업) 분야 연계

- 과기부는 홀로그램을 디지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K-ICT 디지털콘텐츠 5대 기술로 선정해 정책 및 산업육성을 추진
- 홀로그램 응용산업 관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4%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정책적 육성이 시급
 - * 홀로그램 융합기술 : 빛의 간섭성을 이용하여 입체정보를 기록하고 복원을 통해 실제 사물과 동일한 3차원 입체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로 산업 전반에 응용 가능한 독창적 기술
- 전북과 경북이 함께 초융합 홀로그램 시대를 대비하여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준비 필요
 - 전북은 전북지역을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성장시키기 위한 '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' 구축
 - 경북은 과학기술 선도사업으로 홀로그램 부품소재산업 육성

□ 항노화(헬스케어) 산업 연계

- 과거 여성들을 겨냥한 피부 노화에 국한됐던 항노화산업이 웰니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영역 확장 추세
 - * 항노화 산업 : 노화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체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산업의 형태를 바꾸어 나가는 신성장동력 미래산업

- 향노화 산업의 범위는 실버산업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, 의료기기, 식품, 화장품, 의약품, 서비스, 힐링관광 등을 포함하는 신기술융합산업 분야

- 동서내륙경제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전북과 경남, 경북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노화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
 - 전북은 순창건강장수연구소(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)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향노화 산업 육성
 - 함양, 산청 등 경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향노화엑스포, 향노화웰니스관광 코니네이터 양성 등 향노화산업 적극 육성 중

□ 해상풍력 관련 산업 연계

-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확대가 필수적
 -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연계하여 해상풍력 산업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전략 모색 필요
 - *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(2017.12월)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%까지 확대 목표 제시
- 에너지기술평가원은 '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'을 진행 중
 -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울산·군산/부안·영덕·영광·통영 등 지자체 참여
- 우리나라는 육상풍력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해상풍력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(해상풍력 12GW, 육상풍력 4.5GW) 관련 지자체간 발전산업, 기술개발, 기자재 인증, 국가표준시스템 구축 등의 연계협력 필요
 - 전북은 고창·부안, 새만금 등 해상풍력발전 입지여건과 함께 2013년 서남해 2.5GW 해상풍력사업 추진 경험 보유
 - 동서내륙발전벨트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환황해 및 환동해간 연계강화 추진 가능

2. 문화관광벨트

- 동서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에 저항하거나, 때로는 외세의 침략에 함께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이후 사회·문화적으로 분절적 행태 지속(전북연구원, 2018)
- 동서화합의 정신적 토대를 이루는 역사·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야 역사문화* 등의 협력사업 필요
- *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(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)

□ 가야 역사문화 벨트

-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가야사의 공동 연구 및 복원, 활용 등을 통해 동서 가야 역사문화 벨트 조성
- 주요 사업(예) : 가야 역사문화 관광지, 테마파크, 한반도 봉수왕국 재현, 가야문화 및 기술융합 콘텐츠 개발, 해설사 양성, 관련법률 제정 등
- 향후 신라문화권(경북), 가야문화권(경북·전북), 백제문화권(전북), 해양농경문화권(전북)을 연계하는 동서 연계 문화벨트 검토

□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

- 세계 4대 근대시민혁명으로서 위상을 확보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동서 연계협력을 통한 화합과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
- 주요 사업(예) : 동학농민혁명 핵심거점(기포~봉기~전승) 관광자원화, 1·2차 봉기 동학농민군 진로 동서 탐방로, 동학농민혁명 정신 교육·체험 마을 조성 등

3. 백두대간 생태밸리

-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진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산림자원이 우수
- 백두대간 내 국토 내륙 동서축에 위치한 산림 생태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을 활용하여 생태·힐링 거점과 상징공간 조성

□ 백두대간 국립공원 생태·힐링 삼각밸리

-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위치한 국립공원 중 덕유산, 지리산,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생태·힐링 거점 조성
- 주요 사업(예) :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, 산림경관벨트, 산촌거점권역 육성, 숲 태교 마을 및 유아 숲 체험원,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, 국유림 활용 마을기업·사회적기업 육성 등

□ 국토 동서화합 상생공원

- 국토 동서화합을 상징하고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무주군과 김천시 접경지역에 주민주도 도농연계형 상생공원 조성
 - 주요 사업(예) : 동서화합 광장(다목적 행사 및 축제), 라제통문* 관광거점화, 국유림 동서 산림텃밭, 도시민 산촌농장, 동서화합 산촌관광교류센터 등
- *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위치, 한반도 남부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관문으로 김유신 장군이 지나갔다고 해서 통일문으로도 불리워짐

4. 광역 SOC 인프라

□ 새만금~포항 고속도로(동서3축) 완결

- 새만금~포항 고속도로는 전국간선도로망(7x9) 계획의 동서축 중 동서 3축에 해당, 새만금 개발 사업에도 포함된 국가적 핵심 사업
- 물리적·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대구·경북지역과 전북지역의 연계성 향상과 상호교류 활성화 도모

□ 전주-김천 철도망 조기 구축

- 새만금 활성화, 신항만 개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착 등 여객 및 화물 통행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유발량의 광역적 연계를 위한 철도망은 부족
- 서해권(새만금, 군산 등)과 동해권(대구, 포항 등)의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여 지역성장경제벨트지원 철도 축 완성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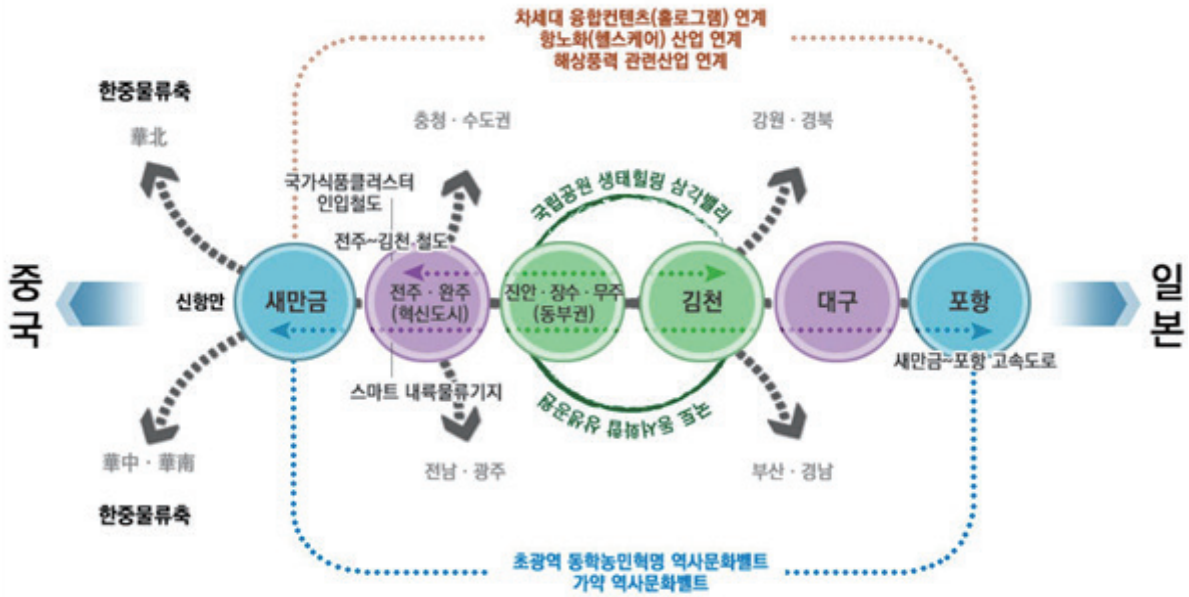
- 운송비 절감을 통한 화물 운송효율 향상과 고효율 교통수단 도입으로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물류수송지원 철도망 확보
- 농생명관련 주요 화물 운송 및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산단 인입철도 구축 필요

□ 스마트 전북물류기지 건설

- 내륙경제벨트의 주력산업인 농생명산업 특화 스마트 물류기지 건설 필요
 - 원자재, 가공, 포장 냉장물류 등의 하역을 ICT 기술과 융합하여 제품만 보관하던 기존 물류 창고 개념에서 벗어나 입고예정, 입고, 보관, 출고 등 전체 물류 시스템운영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
- 영남권 물류기지(경북 칠곡)와 전북권 물류거점 병행 운영관리로 동서벨트 물류비 절감 및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



〈광역 SOC 인프라 구축(안)〉



〈동서내륙경제벨트 구상(안)〉



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(효자동3가 1052-1)
대표전화 063.280.7100 팩스 063.286.9206